“ 국가와 기독교인 “

■ 이종윤 원로목사

사도 바울은 정치 이론가나 정치인이 아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정치적 칼날을 갖고 있다. 바울의 복음은 위대한 메시지이지만,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정치적 세계와 연결된 좀 복잡한 메시지다. 그의 메시지는 예수를 주(主)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主)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둘 다 정치적 용어였다.

로마세계의 지도자 시-저는 주(主)로 불리웠다. 이 거짓된 주장은 배타적으로 정치적이라기보다 종교적이었다. 바울이 설교한 복음의 가장 단순한 표현은 예수가 주(主)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로마 황국문화와 직접적 충돌을 일으킨 메시지였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충돌의 문 앞에서 중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방해물을 통과하는 위력이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어느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황국이나 다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았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3과 9절에서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짓신과 대결하여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참 주(主)시라고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지 아니면 로마의 통치자 가이사가 왕인지 두 개의 주장이 대립되어 있었다. 바울은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으면서도 시저는 주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외쳤다. 바울은 로마서 13:1-7에서 시민정부의 책임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1)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5)라고 반복했다.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2) 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3)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4)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나 선을 행하는 교회를 칭찬하고 도울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에 따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4) 칭찬도 징계도 할 것이다. 로마서 8:34과39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사랑과 하나라고 말한다. 10:9에서 바울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13), 그리스도의 주(主)되심과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바울은 권세들을 그리스도와 그의 주(主)되심과 연결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간 나라들 위에 있는 권세를 포함한다. 바울은 국가에 대한 기독론적 이해를 했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성은 국가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들의 본질적인 왕으로 바울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국가들과 성도들의 왕이시다. 그는 우주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는 계시록 11:15, 19:16에서 지상국가의 충성을 주장한다. 지상의 다스리는 선을 도모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선악이 무엇인지 알도록 국가를 돕는다. 가령 낙태는 살인, 동성애는 악이므로 악을 벌하는 대신 찬양하지 않는다. 바울은 시민이 국가에 복종할 것을 가르쳤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사건들을 국가의 법정이 판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국가는 영원한 기구는 아니었다. 지상의 국가는 잠정적인 것이었다. 국가에 대한 바울의 기술은 예수의 국가에 대한 가르침과 일치하면서 그의 서신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한 사역자로서의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깨끗케 해야 하고 정직과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공인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켜 나가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할 책임과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해 줄 의무와 사명이 있다.

-한국장로신문 [1477호] 2015년 10월 10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Col 1:25-2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Life Letting Know the Lord”	Pastor
* Hymn	505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선 교 사 강아곱·주한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버컷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팔라우), 서광종·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훈쿠아 망, 탕, 씬,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싼다, 사우, 키옴, 랑, 호라, 라비, 벤, 비에, 마옹, 차, 짜우, 미카엘(미얀마)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뽀도, 보디소또,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영일, 김덕수(군선교)

제28권 제5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11:40) 2018년 2월4일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진정 자유하십니까? "

■ 요 8:31~36

유대와 사마리아는 450여 년 동안 함께 하지 못하고 상종하지 않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요 4:4)

1. 진정한 자유란

우리는 진정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미움으로부터, 욕망과 야망으로부터, 끊임없는 욕심으로부터, 이념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자유한지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터의 후계자이며 동역자였던 필립 멜란히톤은 진정한 크리스천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지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삶을 사는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말씀합니다.

2. 자유의 함정

“내가 자유자인가?” 또는 “종인가?” 라는 질문은 인류역사와 함께 존재했던 물음입니다. 과연 자유를 추구하지 않았던 역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종이라고 한다면 왕정시대나 독재시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무슨 종이라는 말입니까? 대대로 수십 년간 예수만 섬기는 가정의 후손으로 장로 된지가 몇 십 년이고,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권사, 집사로 세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수주일하고, 십일조 생활하고, 남선교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과 같은 교회 섬김과 헌신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째서 종이라고 하느냐고 항변한다면 그런 것들이 과연 진정한 자유자의 조건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며, 죄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以信稱義),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크리스천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어야 했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했고, 날마다 죄 없는 기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요 8:35).

아버지의 집은 천국입니다. 그 곳에는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사랑과 위로와 찬송이 넘쳐나는 집입니다. 아름다운 곳, 화려한 동산, 진정한 샬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죄의 종이 되면 이 집에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영적 방랑자, 영적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맺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말은 인식 작용,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인해 절규를 해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가 삶으로 드러날 때만 그 효능을 발휘하는 살아있는 진리가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로부터의 자유, 사랑에로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사랑에로의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의 참 자유자가 됩니다.

진정한 자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논리와 이념, 정죄와 판단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 자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율법의 주인이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진정한 자유자,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적막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주도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Ⅰ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오치열 장로
Ⅱ	오전 11시 20분	서명철 목사	송인권 장로
Ⅲ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안인호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마 11:28-30···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36(시 90)···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맡 은 이
찬 송 Hymn	85(85)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벧전 1:3-9, 13-2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산 소망과 썩지 않을 유업"···	정성국 목사
* 찬 송 Hymn	322(35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11-12	인 도 자
찬 송	421(210)	다 함 께
기 도		김혜언 집사
성 경	계 13:1-10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마지막 적그리스도"	설 교 자
* 찬 송	483(532)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이영희 권사
성 경	삼상 18:5-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혜정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Ⅰ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윤지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Ⅱ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Ⅲ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 8:36)		
수요Ⅰ부								
수요Ⅱ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도르가 전도회 월례회 / 4일(주) 오후12시40분 706호
2. 선교위원 및 기도팀장 회의 / 4일(주) 오후3시30분 202호
3. 비전2020 기도회 / 4일(주) 오후3시30분 802호
4.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 / 7일(수) 수요예배 후 101호
5. 정기당회 / 7일(수) 수요예배 후 가이오실
6. 16교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모임 / 9일(금) 오후12시 휘모리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이경진(성형외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종욱(진검)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4. 세례식 신청 마감 / 금년도 첫 세례식인 2월 세례식이 2월18일(주) 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2월4일(주) 세례/입교/개종/ 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602호)
    2월11일(주) 문답총정리는 오후1시 602호에서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2월11일(주) 문답은 오후2시 602호에서 있습니다.
    ※ 기타궁금한 사항은 010-2376-3892로 문의바람
15. 정성국 목사 소개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B.A.)
    미국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M.Div., Ph.D.)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24명	258명	361명	1,543명	140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28)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월 28일	헌 금	42,861,500	
"	특별예배비		700,000
	교회학교운영비		3,042,000
"	선 교 비		2,000,000
	출 판 비		270,000
"	통 신 비		819,200
	소모품비		356,200
	차량유지비		295,700
"	복리후생비		67,000
	수도광열비		214,960
	세금과공과		39,000
	수선유지비		120,000
	식당운영비		1,759,800
"	합 계	42,861,500	9,683,860